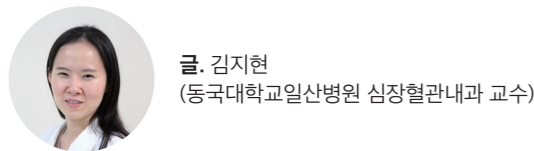


찬 바람이 불면 찾아오는 가슴 통증

<고양소식>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학칼럼 코너를 마련, 독자 여러분께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가슴통증'이다.



글. 김지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사람마다 통증이 상이한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이란 무엇일까? 심장 내 좌심실에서 대동맥 판막을 지나 대동맥으로 혈액이 공급되면 전신 혈액 순환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장기들은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 심장이 전신으로 동맥혈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심장 자신을 먹여 살리는 분지부터 내게 된다. 심장 동맥은 생긴 모양이 과거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관상동맥이라고 자주 불린다. 심장 동맥은 좌측에 크게 2가닥, 우측에 1가닥으로 심장을 에워싸면서 심장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해준다. 이러한 심장 동맥, 관상동맥 중 한 군데 이상이 좁아지거나 급작스럽게 막혀 흉통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아울러 관상동맥질환이라고 부른다.

심장은 내장 구조가 특이한 소수를 제외하곤 주로 좌측에 있고 좌측 거드랑이 쪽을 향해 팽이처럼 생겼으며 자기 주먹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장에서 기인한 흉통은 주로 우측이 아닌 좌측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발생**하게 된다. 사람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은 상이하다. 가슴이 눌리는 듯 아프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체한 증상이

나 명치끝의 불편감, 가슴 부위가 답답하거나 가슴이 빠르다고 표현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일부 환자들은 턱으로 뻗치는 통증이나 아랫니가 시린 증상이 심해 치통이나 악관절 통증으로 오인하여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심장내과 방문을 조언 받아 진료실을 내원하기도 하고, 왼쪽 어깨와 왼팔로 뻗치는 통증에 통증 클리닉부터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질환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질환 발생 빈도가 높고 흡연 또한 심장혈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간혹 본인은 전자담배를 피우고 연초 담배는 끊었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는데 전자 담배 또한 심장혈관에는 해롭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비만 또한 위험인자로 특히 운동 부족으로 인한 내장지방증가로 인해 복부 비만이 진행되는 것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인자에 해당된다.

찬 공기에 혈관 수축으로 발생하는 통증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은 왜 찬바람이 불면 더 심해지거나 악화될까? 찬 공기에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기존의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진 혈관 내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 좁아진 정도가 심해지므로 수축한 심장혈관(관상동맥) 흉통이 발생하게 된다. **통증이 찬 바람을 쐬거나 운동 시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휴식을 취할 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가까운 심장혈관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혈관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심장내과에서는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상동맥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 심장혈관 CT 촬영술을 시행 받을 수 있다. 운동 시에 발생하는 흉통이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에서 발생하는지 심전도의 변화는 동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하거나 핵의학과 약물을 이용한 유발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받을 수 있다. 최근 건

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경우 동반되는 여러 위험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는 환자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나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똑같은 내경의 혈관이라고 하여도 여러 원인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좁아진 정도가 달라져 유의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춘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다.

흉통이 최근 들어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이전보다 호전 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조금 더 빨리 가까운 심혈관 센터 또는 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 안정 시에도 흉통이 있거나 흉통 시 응급 조치로 먹을 수 있는 설하 약제를 반복 투약함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심근경색은 서서히 동맥경화성 변화로 좁아진 혈관의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 화산폭발처럼 갑작스레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으로 본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처음 발생한 흉통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게 된다. 심근경색의 경우 빠른 재관류가 심장근육의 괴사를 줄여 차후 심근의 흉터, 손상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중 통증으로 깨어나거나 수면을 저해하는 통증이 있다면 늦은 시간이라도 가까운 응급실로 꼭 내원하는 것이 좋다. 응급실 내원 직후 심전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중대한 심근경색 여부를 감별할 수 있고, 동시에 시행하는 응급혈액 검사로도 위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이러한 검사 상에서 특별하게 나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꼭 심장혈관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예약하고, 권유하는 심장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관상동맥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찬바람이 불면 누구나 월동 준비를 시작한다. 한파주의보가 발생한 요즘 같은 날씨에는 흡시나 찬바람과 함께 오는 개인 건강의 이상 신호는 없는지 체크하고 대비해야 한다.